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金 璟 培

中學生이 知覺한 相談室 運營實態와 役割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Realities of the Operation and Role of the
Comunselling Room perceived by the Middle School pupils

1992年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教育行政學科
教育行政專攻

崔 相 翼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金 璟 培

中學生이 知覺한 相談室 運營實態와 役割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Realities of the Operation and Role of the
Comunselling Room perceived by the Middle School pupils

위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2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教育行政學科
教育行政專攻

崔 相 翼

崔相翼의 教育學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2年 12月 日

審査委員長 曹 吳 煥 

審査委員 李 溶 傑 

審査委員 金 環 培 

目 次

I. 緒 論	1
1. 研究의 必要性	1
2. 研究의 目的	2
3. 研究의 制限點	3
II. 理論的 背景	4
1. 相談의 歷史的 背景과 發達	4
1)職業指導 運動	4
2)精神衛生 指導	6
3)兒童指導 運動	6
4)우리나라 相談의 發展過程	7
2. 相談의 理論과 實際	8
1)Freud의 情神分析的 接近	8
2)Adler의 個人 心理學的 接近	9
3)實存主義的 接近	9
4)Rogers의 人間中心的 接近	10
5)Kelly의 個人概念 構成體的 接近	11
6)Perls의 形態主義的 接近	11
7)Berne의 意思去來 分析的 接近	12
8)Ellis의 合理的 情緒的 接近	12

9)Williamson의 理性的 指示的 接近	13
10)行動主義的 接近	13
11)Glasser의 現實治療的 接近	14
3. 學校 相談室의 概念과 技能	15
4. 相談教師의 資質과 役割	20
Ⅲ. 研究의 問題	23
Ⅳ. 研究의 方法	24
1. 研究의 對象	24
2. 檢査 道具	24
3. 資料의 處理	25
4. 研究의 節次	25
Ⅴ. 結果및 解釋	26
1. 相談室 運營의 實態	26
2. 相談室 의 役割	38
Ⅵ. 要約및 結論	51
1. 要 約	51
2. 結 論	53
參考 文獻	56
質 問 芝	60
英文 草錄	65

표 목 차

1. 연구의 대상 -----	24
2. 연구의 절차 -----	25
3. 중학생이 지각항 상담실의 필요성 -----	26
4.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 -----	28
5. 상담 경험 유, 무 -----	29
6. 상담을 받았다면, 도움이 되었는가 -----	31
7. 상담을 받아보지 않은 이유 -----	32
8. 중요한 문제가 있을때, 의논하고 싶은 사람 -----	34
9. 학교 상담의 관심 유, 무 -----	35
10 현재 상담실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37
11. 상담지도를 할때에 생활지도 방향 -----	38
12 상담하기 적당한 시간 -----	40
13. 상담실의 위치 -----	41
14 상담내용의 비밀보장 -----	43
15 상담교사의 업무 -----	44
16 원하는 상담교사 -----	46
17 상담교사에 대한 느낌 -----	47
18 상담교사에 상담하는 친구에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49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학교교육을 2대 영역으로 본다면, 학습지도 영역과 생활지도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학습지도와 생활지도가 조화를 이룰때, 이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학교의 중요한 기능으로 학습지도에 버금가는 생활지도의 중심은 상담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생활지도를 거의 외면한채 입시 위주의 지식 교육과 학생의 내면보다 외면을 더욱 중요시하는 비인간적인 교육이 되고 있다.

오늘의 한국 사회는 후기 산업사회 (post industrial society)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물질 만능주의와 퇴폐향락산업의 발달과 기회주의적인 한탕심리와 현실도피등으로 인한 사회병리적 현상과 인구 문제, 환경 오염, 범죄율 증가와 같은 사회 문제가 심각하게대두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급격한 신체발달, 신체적 성숙과 정신적 성장의 불일치, 대인 관계의 전환 등으로 가정과 학교생활에서 부적응을 나타내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더욱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서구적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와 정보의 물결속에서 성인들과 청소년간 사이에 세대간의 차가 증가 하고 있다.

상담이 전문적인 영역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온 뒤의 일이다. 이장호¹⁾는 상담이란, 도움을 필요로하는 사람이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과의 대면관계에서, 생활과제의 해결과 사고, 행동 및 감정 측면

1) 이 장호. 상담심리학 입문, 서울 : 박영사, 1983. p8.

의 인간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학습 과정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화 교육”²⁾ 이라고 한 관점에서 학교현장에서 인간교육은 생활지도 활동 (상담실 활동) 에 기대 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청소년 백서³⁾에 의하면 중등학생들에 의한 범죄는 1986년 16,198건, 1987년 14,626건, 1988년 14,238건, 1989년 15,666건, 1990년 18,280건으로 최근에는 다시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 범죄의 증가 이외에도 세대간의 대화 단절, 학생들 간의 대인관계의 갈등, 학생들의 자살률 증가 등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가정의 기능이 약화된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학생상담은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제, 상담실의 이념과 역할은 어느때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상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상담실의 지도육성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학생들이 생각하는 상담실에 기대하는 요구치와 기존 상담실의 역할과 기능을 조사하여 새로운 상담실의 기능과 역할을 조명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연구의 목적은 중학생들이 상담실 운영의 실태와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를 구명하는데 있다.

2) 김 정환. 인간화 교육의 역사적 배경 80년대 , 서울교육,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1980.

3) 체육 청소년부. 청소년 백서 서울 : 동광 문화사 1991.

첫째, 중학생들이 지각한 상담실 운영의 실태는, 성별과 학년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가를 밝힌다.

둘째, 중학생들이 지각한 상담실 운영의 역할을 성별과 학년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가를 규명하는데 있다.

셋째, 중학생들이 상담실 운영의 실태와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지각 하는가를 알아냄으로서 현행 중학교의 실태와 역할의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1) 연구자가 임의로 조사 도구를 제작한 것으로 객관도, 타당도, 신뢰도 검증은 거치지 않았으므로 많은 문제가 있다.

2) 경제적, 시간적 제한조건으로 연구의 대상은 구로구의 남녀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삼았으므로,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모든 경우에 일반화 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Ⅱ . 이론적 배경

1. 상담의 역사적 배경과 발달

상담이란 넓은 의미로 본다면 인류의 역사와 같이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것이다.⁴⁾ 인간은 언제나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면서 생활하게 되므로 끊임없이 자기자신에 대한 이해와 또한 사회와 자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에 상담은 언제나 동반되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상담(생활지도)의 발달에 중요한 공헌을 한 학문은 철학, 심리학, 종교학, 인류학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학문적 바탕이 생활지도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수 있으나,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주로 미국에서 발달된 상담의 이론과 실천이다.

1) 직업지도 운동 (Vocational Guidance Movement)

1895년 초에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기술학교에 근무하는 Merrill의 노력에 의해 직업지도의 실험적 연구가 시작되었다. Berwer(1942)는 이 연구를 교육적 견지에서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생활지도 봉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조직적인 시도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Merrill의 계획은 학교에서 배운 무역학도에게 탐색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선택에 대한 상담을 하며, 이 과정을 마친 학생들의 추후지도도 하는 것이었다.

4) 홍 경자. 성장을 위한 생활지도 , 서울 : 탐구당, 1990. p. 51.

Mathewson⁵⁾은 Jesse B. Davis가 11학년 주임 교사로 (1896-1907) 재임하는 동안 학생들의 상담을 위하여 대부분 시간을 보내면서 1907년 미쉬간주 Grand Rapid 고등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직업및 도덕지도를 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생활지도의 원조인 미국의 프랭크 파슨스 (Frank Passons)는 1908년에 보스톤에 직업지도국 (The Vocation Bareau of the Civic Service House)을 설치하여 청소년을 선도할 목적으로 직업지도 운동을 한것이 시초가 되어 각 개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선택, 취업준비를 노력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⁶⁾

Passons는 개인이 자신의 장단점을 이해하여 직업의 기회를 선택하는데 이러한 지식을 적절하게사용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다. 그는 “현명한 직업 선택을 위해서는 각 개인은 첫째로, 자기자신에 대한 이해와, 둘째로 여러 가지 직업에 있어서의 성공에 필요한 조건과 자격에 대한 이해와, 셋째로 자기자신에 관한 여러가지 사실과 장차 선택하게될 직업적인 조건이나, 환경에 관한 사실과 관계를 추리할수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⁷⁾ 고 믿었다. 이와 같이 초기의 조직적인 생활지도 운동은 무엇보다도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하는 것으로 직업지도에 중점을 두었다.

그후 직업운동으로서의 상담은 개인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각종 심리검사의 발달과 직업정보의 체계적인 전달방법의 발달에 의하여 더

5) R. H. Mathewson, Guidance Policy and Practice , N.Y: Harper, 1962. p.72.

6) J. M. Lee, N. J. Pallone, Guidance and Counseling in Schools (N.Y :MCGRAW, Hill Book Co., 1966), P.4.

7) Humphrey a Traxler, 1954, pp.74-75.

욱 효과적인 방법을 발전 시키게 되었다. 특히 세계 제1차대전 이후 발달하기 시작한 적성검사와 지능검사는 직업상담을 활발하게 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그결과 직업상담은 학교생활 지도운동의 중요한 부분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2) 정신 위생지도 (Mental Hygiene Movement)

심리학의 새로운 분파인 예방 심리학 (Preventive Psychology) 으로서의 정신위생의 개념은 19세기 후반부터 나타났다.

정신위생운동은 1908년 미국의 Beers 가 A Misd That Found Itself 란 책자를 발간하여 현대인의 많은수가 정신적으로 불건전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촉진되었다. 그는 동료들을 규합하여 1908년 그의 고향에 정신 위생협회(Connecticut Society for Mental Hygiene)를 조직하고, 다음해 이를 계기로 전국 정신 위생협회가 창립되었다. 이것이 확대되어 1929년에는 국제 정신위생 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for Mental Hygiene)가 결성되었고 오늘날에는 세계 정신보건협회로 개편되어 왔다.

3) 아동 지도운동 (Child Guidance Movement)

아동 지도운동은 1909년 시카고에서 Healy 와 그의 아내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병원에서 시카고 빈민가에 살고있는 아동(이들 대부분은 결손가정에서 왔음) 들의 신체적인 질병을 치료하고 있었는데, 이 경험을 통하여 Healy 부부는 아동들의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진료소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어떤 부호의 재정

적인 후원을 받게되어 그들은 진료소를 개설하게 되었다. 그후 수년후에 Illinois주가 이 진료소를 인계받아 일리노이 청소년 조사기관으로 변경되었다. 이를 출발점으로 하여 1914년에는 100여개가 넘는 아동지도 진료소가 설치되게 되었다.

4) 우리나라 상담의 발전과정

우리나라에 있어서 상담은 해방과 더불어 새로운 교육사조의 도입으로 아동에 대한 이해를 중요시하면서 시작되었다. 해방을 맞이한후 서양, 특히 미국의 영향을 받게되어 민주주의 교육사조가 도입된 이후로 아동에 대한 깊은 이해를 중요시 함으로써 서서히 생활지도 운동은 일기 시작하였다. 또한 심리측정과 상담이론의 도입은 학교에서의 생활지도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조직적인 생활지도운동은 1950년대 초기의 심리측정 도입을 비롯하여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학습지도에 관한 수많은 연구물들의 출현, 수많은 저서의 출판, 수많은 이론의 소개 등에서 비롯되었다.⁸⁾ 조직적인 상담활동은 1957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장학교사 강습회를 개최하여 40명의 전문적인 상담교사를 교육시킨 것이 그 시초가 있다. 그 이후에도 1961년 12월까지 다섯 차례의 강습회를 통해 170명의 교사에게 훈련을 실시 했으며, 문교부와 중앙적성 연구소에서 이 과정을 수료한 사람도 182명으로 기록되어 있다.⁹⁾

8) 황 응연, 현대 생활지도, 서울: 교육 출판사, 1984.

9) 한국 교육학연구사 위원회, 한국 교육학연구사 <1945 -1972>, 서울 : 한국 교육학회, 1973, pp.107 -115.

이 때부터 중고등학교 생활지도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대학에서도 1962년 서울대학교에 학생생활 지도연구소(지금은 학생생활연구소로 개칭됨)가 발족된 이래 거의 각 대학마다 학생 생활연구소가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대학의 학생지도에 있어서 전문성을 지향하기 위한 획기적인 시도였을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의 생활지도 운동에 대한 제도적인 역할도 담당하게 되었다.

1963년 중고등학교 상담교사를 중심으로한 한국 카운슬러협회가 창립되었으며, 1974년에는 한국 카운슬러협회 각 시,도 지회가 발족되었고, 심리검사 윤리위원회가 창립되었으며, 또한 중고교 교도교사 자격규정 시행 등 생활지도의 본격적인 활동이 전개되었다.

1973년 교도교사제가 법제화되었고, 한국 카운슬링협회와 각 시,도 지회는 연차대회, 월례 발표회등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을 소개하고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있다.¹⁰⁾

2. 상담의 이론과 실제

1) Freud의 정신분석적 접근

창시자는 Freud이며, 이 접근은 최초로 포괄적인 성격이론 및 심리치료의 체계를 확립하였다. 정신분석이 이 접근의 핵심이며, 무의식, 초기경험, 성, 공격성 등이 강조되고 있으며, Brucke교수의 생리학과 Helmholtz의 에너지 보존법칙 등에 영향을 받아서 이론적 체계를 세우게 되었다.¹¹⁾

10) 이 영덕, 정원식, 생활지도의 이론과 실제, 서울 : 교육과학사, 1982, p. 66.

11) 이형득외 공저, 상담의 이론적 접근, 서울 : 형설출판사, 1992, pp. 47-82

상담의 목적은 내담자가 자기행동의 무의식적 동기를 각성하여 의식수준에서 행동할 수 있는 성격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 상담의 과정은 ① 시작의 단계, ② 전이의 발달단계, ③ 지속성 활동단계, ④ 전이의 해결단계이다.¹²⁾ 주요 기술로는 자유연상, 저항의 분석과 해석, 꿈의 분석과 해석을 들 수 있다.

2) Adler 의 개인 심리학적 접근

이 이론의 창시자는 Adler이며, Adler는 Freud와 같은 입장을 가진 적도 있으나 몇가지 문제로 해서 독자적 이론을 개발했다. 그는 생물학적인 본능보다는 사회적인 면을, 무의식적인 면보다는 의식적인 면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가족관계가 개인의 발달에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보았으며, 그의 이론은 자신의 경험에 많은 기초를 두고있다.¹³⁾

상담의 목적과 목표는, 열등 콤플렉스와 그릇된 생활양식의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잘못된 생활목표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생활양식을 구성하게 하고 사회적 관심을 가지게 한다.

상담과정은, ① 상담관계의 설정, ② 내담자의 역동성 분석과 이해, ③ 해석, ④재교육이며, 실제적인 기술로는 부드러운 충고와 같은 언어적 기술, 역할연기, 빈의자 대화, 무엇인 것처럼 행동하기, 상상하기 등 절충적인 기술들을 사용한다.

3) 실존주의적 접근

주요 인물로는 May, Frankl, Jourard 등이 있으며, 정신분석학적 접근과

12) 대한 카운슬러 연구협의회, 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중앙 적성출판사, 1988. pp. 238-250.

13) 이형득 공저, 상담의이론적 접근, 서울 : 형설출판사, 1992. pp.83-108.

행동주의적 접근이 결정론적 입장을 취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상담에 있어 철학적인 면, 그중에서도 특히 인간관에 많은 영향을 남겼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최근의 거의 모든 접근은 인간관에 관한한 이접근의 영향을 받고 있다.¹⁴⁾

상담의 목적은, 타고난 가능성 또는 경향성을 포함한 자기존재를 완전히 각성하고 이를 실현하게 하며, 이를 위해 자기각성을 최대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개인의 가능성 발휘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한다.

상담의 과정은, ① 인간적 만남, ② 상담목표의 이해, ③ 촉진적 관계형성, ④ 각성이며, 주요기술로는 역설의 의도, 역반응 등이 있다.

4) Rogers 의 인간중심적 접근

창시자는 Rogers이며, 정신분석적 접근에 반대해서 일어난 접근이다. 처음에는 비지시적 접근이라 불렀으나 그후 내담자 중심 접근으로 바뀌었으며, 최근에는 인간중심적 접근으로 더 알려져있다. 인간경험의 주관성에 기초를 두며 상담에서는 신뢰로운 관계를 대단히 중요시한다. 상담의 목적과 목표는,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으로의 성장이며, 내담자의 방어적 행동을 조성하는 조건들의 해제를 돕고 유기체적 경험의 개방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도와서 내담자의 자아와 유기체의 경험들을 가급적 일치하도록 한다.¹⁵⁾

이 접근에서는 상담과정을 구체적으로 나누기는 어려우며, 상담과정에서는 ① 내담자의 책임과 주체성이 강조되며, ② 내담자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문제해결에 대한 충분한 통찰을 얻도록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진실성, 무조건적 긍정적 수용, 공감적 이해와 같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가 중요시

14) 상계서 , pp. 115-121.

15) 홍 경자, 성장을 위한 생활지도 , 서울 : 탐구당., 1990. pp. 130-135.

되고 있다.

5) Kelly 의 개인 개념구성체적 접근

창시자는 Kelly이며, “개인 개념구성체 심리학”이라는 그의 성격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상담에 있어 가장 체계적인 접근중의 하나이며, 기존의 접근과는 다른 용어를 포함하는 등 비정통적인 성격을 띤 접근이다.

상담의 목적과 목표는, 개인 개념구성체를 재구성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기존의 개념구성체를 보다 정확하게 조직할 수 있게하고 기존 개념구성체들 가운데 필요에 따라 새로운 개념구성체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상담과정은, ① 경험의 평가, ② 활동의 평가, ③ 진단, ④ 심리치료적 접근이다. 기술로는 관계설정, 면담통제, 보증하기, 상담자의 태도와 가르치기, 전이의 통제, 고정역할치료 등이 있다.

6) Perls 의 형태주의적 접근

창시자는 Perls이며, 정신분석학, 형태심리학, 현상학 그리고 실존주의 영향을 받았다. 분석적 접근을 반대하며 통합과 지각을 강조한다. 특히 신체적 기능과 정신적 기능의 통합을 강조하며, 도형과 배경의 형성과 소멸의 과정을 통하여 인간행동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상담의 목적은, 잘 통합된 인간이 되도록하며, 이를 위해 개인적인 각성의 향상과 여기 지금의 자신이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형태의 생성과 소멸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모든과정이 상담과정에 포함되겠다. 주요기술로는, ① 현재중심과 각성기법, ② 언어적 접근기법, ③ 비언어의 각성기법, ④ 환상접근기법, ⑤ 과거와 미래에 대한 기법, ⑥ 감정에 대한 접근기법이 있다.¹⁰⁾

7) Berne 의 의사거래분석적 접근

창시자는 Berne이며, 이 접근은 Freud의 영향과 Federn의 자아 심리학 및 Penfield의 기억기재에 대한 연구에 영향을 받았다. 인간행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상담목적은 자율성의 성취이다. 어버이 자아, 어른 자아 그리고 어린이 자아사이에 혼합과 배타가 없도록 자아상태를 바꾸어서 필요에따라 모든 자아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능력, 특히 어른 자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한다. 부적절하게 결정된 생활자세와 생활각본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서 자기긍정과 타인긍정의 생활자세와 생산적인 새로운 생활각본을 형성할 수 있게 한다.

상담과정은, ① 상담자와 내담자의 계약, ② 구조분석, ③ 의사거래분석, ④ 게임분석, ⑤ 생활각본 분석이다. 주요기술로는 허용, 보호, 상담자의 잠재능력, 조작(질의, 맞닥트림, 설명, 실증)이 있다.

8) Ellis 의 합리적 정서적 접근

창시자는 Ellis이며, 인간의 사고와 신념이 정서와 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기파괴적인 신념체제를 바꾸도록 하는 인지적 재구조화를 위해 훈육적, 지시적, 적극적인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상담의 목적은, 내담자의 자기파괴적인 신념들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관대한 인생관을 갖게하며, 더욱 융통성있고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 이를 위해 자기관심, 자기지도, 사회적관심, 관용, 융통성, 불확실성의 수용 등에 관심을 갖도록한다.

16) 전국 대학 카운슬러 연구협의회, 상담의 이론과 실제 ,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1988, .pp. 209-228.

상담과정은, ① 내담자에게 비합리적인 신념을 보여주고, ② 비합리적인 신념은 자신의 재교육에의한 것임을 자각하게 하며, ③ 내담자의 비합리적인 신념을 바꾸도록하며, ④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인생관을 갖게하는 것이다. 기술로는 인지적, 정서적, 환기적 그리고 행동적기술로 대별되며 구체적인 것으로는 논박, 과제제시, 독서법, 자기제시, 수용이 있으며 행동주의적 접근의 많은 기술을 그대로 사용한다.

9) Williamson 의 이성적 지시적 접근

창시자는 Williamson이며, Paterson 등이 많은 업적을 남겼다. 복잡한 현실세계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철학적으로는 실존주의와 관련이 있으나 사고보다는 행동에 중점을둔다.

상담의 목적은, 내담자가 합리적 해결과 선택을 하게하고 내담자의 자기 이해, 자기지도, 자기성장을 촉진시킨다.

상담의 과정은, ① 분석, ② 종합, ③ 진단, ④ 예후, ⑤ 상담, ⑥ 추수 지도이다. 주요기술로는 라포오형성, 자기이해의 개발, 조언이나 실행계획의 수립, 계획실천,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있다.¹⁷⁾

10) 행동주의적 접근

대표적인 학자로는 Krumboltz, Thoresen, Bandura, Wolpe, Kazdin등이 있다. 문제가 되는 행동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바꾸기 위해 Pavlov, Skinner, Guthrie, Hull, Bandura 등의 학습원리를 적용하며, 새로운 상담기술을 계속 발전시켜가고 있다.

17) 이 형득 공저, 전개서 . pp. 303-320.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소거시키고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시키는 것이 상담목적이다. 이를 위해 잘못 학습된 행동의 소거와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행동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조건을 찾아내거나 조성하려한다.

상담의 과정은, ① 상담관계의 형성, ② 문제행동의 규명, ③ 현재의 상태파악, ④ 상담목표의 설정, ⑤ 상담기술의 적용, ⑥ 상담결과의 평가, ⑦ 상담의 종결이다. 주요 기술로는 주장훈련, 체계적 과민성제거, 결과직면 과민성제거 감동적 구상법, 부의연습 등이 있다.

11) Glasser 의 현실치료적 접근

창시자는 Glasser이며, 성공적 정체감을 강조하는 이 접근은 전통적인 접근방법에 반대해서 일어났다. 복잡한 현실적 장면의 맥락에서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한다. 기본적으로는 내담자가 더욱 현실적인 행동을 배워서 성공적으로 현실을 타개해 나갈수있는 방법에 초점을 둔 비교적 단기간의 상담 및 심리치료 이다.

상담의 목적은, 내담자가 현실적이고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하게하고, 성공적인 정체감을 개발하도록하여 궁극적으로 자율성을 갖도록한다. 내담자가 행동에 대한 가치판단을 할수 있게 하고, 행동을 바꾸려는 결정을 하는 등 자기결정을 할 수 있게 한다.

상담의 과정은, ① 관여, ② 책임의 소재확인, ③ 재학습기술이다. 주로 적극적 지시적 그리고 교수적방법을 사용하며 구체적으로는 관여단계에서는 온정, 관심표명, 긍정적 존중, 진실성, 자기 개방이 있다.¹⁸⁾

18) 이 형득 외. 상담의이론적접근 , 서울 : 형설 출판사, 1984. pp. 385-408.

3. 학교 상담실의 개념과 기능

상담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소가 필요하다. 상담실은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1대 1의 관계에서 어떠한 문제를 놓고 대화하는 전문적인 장소이다. 반드시 일정한 장소가 필요한가에 대한 연구가 없어 단정짓기는 어려우나,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상담활동을 하려면 형식적이거나 상담실은 필요하다고 본다.

상담실은 학교에 따라 여러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다.¹⁹⁾ 즉, 협의실, 교도실, 생활지도실, 훈육실, 학생실또는 영어로 Counseling room 이라고 불리운다.

상담실은 학교와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최대한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기이해 (self-understanding) 와 자기지도 (self-direction)를 할 수 있도록 개인을 돕는 과정이다. 이와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담실의 지도 프로그램은,

- ① 학생들에 대한 조직적이고 포괄적인 연구를 해야하며
- ② 학생들에게 교육적, 직업적, 사회적 개인적응의 기회를 제공하며
- ③ 상담을 통하여 개인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며
- ④ 학생들의 상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학교직원, 학부형에 대한 조사연구, 정보활동및 훈련을 쌓도록 해야한다고 하였다.²⁰⁾

상담실의 개념은 청소년들이 당면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교사와 부모등 성인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자신이 자기지도를 통해서 문제해결 능

19) 김 충기, 생활지도교육, 서울 : 학문사, 1983. p. 30.

20) 김 정한, 생활 지도, 서울 : 형설 출판사, 1982. pp. 9-11.

력을 기르고, 동시에 직접 그들이 당면한 각종 문제와 대결해서 이겨내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다.

그리고 George 와 Cristiani 는 상담의 목표를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²¹⁾

첫째, 행동변화의 촉진 둘째,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내담자의 능력을 개선하는 것 셋째, 내담자의 효율성을 고양하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넷째, 의사결정 과정의 증진 다섯째, 내담자의 잠재력과 개발의 촉진 등이다.²²⁾

한편, Shertzer와 Stone(1974)은 상담의 목표를 행동변화, 정신건강의 촉진, 문제의 해결, 개인적 효율성의 증진, 의사결정 등으로 구별하였는 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²³⁾

첫째, 행동변화는 개인이 좀 더 생산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행동을 감소시키거나 제거시키고 개인이 만족하고 성공적인 생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행동을 형성시키거나 증가시키는 것이다.

둘째, 목표는 정신건강의 촉진이다. 상담은 단순히 부적응 행동의 치료에 멈추기 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정신건강을 촉진하는 것이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책임감이 있고 독립적이며 인간적으로 성숙해 있다. 그러므로 상담에서는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는 여러 병리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수정하여야 한다.

셋째, 문제의 해결이다. 즉, 피상담자가 가지고 오는 문제가 무엇이건 이

21) R. A. George, T. S. Cristiani, Theory, Methods, and Processes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1981.

22) 김 충기.이 재창, 상담과 심리치료, 서울 : 교육과학사, 1985. pp. 24-27.

23) 박 성수, 생활지도 , 서울 : 정민사, 1988. pp.211-218.

를 해결하는 것에 상담의 목표가 있다는 것이다. 상담에 필요한 것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 상담자를 찾아오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담자가 도움을 줄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담자의 문제해결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것이다.

넷째, 개인적 효율성의 증진이다. 즉, 내담자의 사고, 행동, 결정의 효율성 증진시키는 것이 상담의 목표라는 관점이다. Blocher(1966)는 상담의 목표를 생산적인 사고를 증진하고 적극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다양한 문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에 두었다. 이와같이 심리적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효율성의 증진을 상담의 목표로 보는 견해는 이론적인 논의에서보다 실천적인 논의에서 더 흔하게 볼 수 있다.

다섯째, 의사결정이다. 즉, 상담인 목표는 아동이나 그밖의 내담자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 것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담자는 스스로 어떠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며, 결정은 어디까지나 내담자 자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현재 부딪치고 있는 선택이나 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뿐만 아니라 미래에 직면하게될 선택과 결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을 상담의 목표로 보아야 할것이다.

학교 상담실의 기능을 살펴보면,

1) 상담기능에 대한 관점

상담기능의 범위에 대해서는 두가지의 관점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상담은 상담자가 문제를 가진 피상담자를 주로 개별적으로 면담하는 활동으로만 보려고 하는 관점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는 상담실의 기능을 발생한 문제의 사후해결이라는 치료적인 지도로 본다. 따라서 상담실

의 활동과 상담자의 임무도 문제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문제행동을 치료하는 면에 치중하게 된다.

둘째, 상담실의 기능은 보다 더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관점이 있다. 여기에는 몇 %에 불과한 문제학생의 치료나 사후지도에만 몰두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대다수의 학생들을 사전 지도하여 문제발생을 예방하고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상담실의 활동목표이며 상담자의 임무라고 본다.²⁴⁾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행하고 있는 상담실의 기능은 매우 다양하다.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에서 조사연구한 자료 (1971 : 109) 에 의하면 상담실의 임무는,

- ① 학생과의 개인 및 집단상담
- ② 생활지도 프로그램 계획, 진행의 협조
- ③ 학생 평가 (제자료 수집, 심리검사 실시)
- ④ 교직원과의 상담적 협조
- ⑤ 학부모와의 상담협의
- ⑥ 조사연구 및 특수 중점활동
- ⑦ 전문적 문헌연구 및 연수
- ⑧ 사례협의회 개최 등이 열거되어 있다.

이들중 ① - ④ 항은 10 % 이상의 응답자가 중요 임무라고 반응하고 있다.

동 연구원에서 제시하는 또 다른 자료 (1974 : 19 - 25)에 의하면 상담실

24) 김 정섭, 상담실의 설치와 운영, 서울시 카운슬러 협의회편, 서울 : 박영사, 1975, pp.236-271.

의 기능은,

- ① 제반 교도계획의 수립 및 상담에 대한 연구와 연수활동
- ② 방향 지도
- ③ 학생이해 자료조사 및 통계사무
- ④ 상담및 상담협조
- ⑤ 진로 지도
- ⑥ 정보 활동
- ⑦ 정치 및 적응지도
- ⑧ 추수 지도
- ⑨ 각종 자료 및 문제 정리, 보관
- ⑩ 장학 지도 및 각종 표창사무

1972년 9월 문교당국은 교도주임제를 신설하고 그 임무를 다음 세가지 영역으로 규정하였다.²⁵⁾

- ① 학생 상담
- ② 학생 이해활동
- ③ 진로 지도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상담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상담에 대한 광의의 관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²⁶⁾

25) 문교부 훈령, 제 227호, 1972

26) 이 영숙, “중고등학교 상담실 운영실태및 학생의 상담요구 분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90, pp. 6-8.

4. 상담교사의 자질과 역할

1) 상담교사의 자질

카운슬러의 이상적인 인성을 밝히기 위하여 이론가들이 노력을 경주 하였다. Allen 은 효과적인 카운슬러란, 정서적인 경험을 통하여 비교적 훌륭한 사람이며 비효과적인 카운슬러란 내면 생활의 특성에 비추어보아 비교적 순탄치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냈다²⁷⁾ Mower 은 카운슬러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인간적 자질로 “인간적 성숙” 을 들고 있으며²⁸⁾, Combs 와 Super 는 유능한 카운슬러는 그들의 내담자를 능력있고 의존적이며, 가치있는 존재로 보고있으며, 이타적이고 평범하게 지각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²⁹⁾

정희경은 카운슬러의 인성적 자질로 개인에 대한 존중, 객관성, 자신에 대한 이해, 협동, 자발성, 정서적 안정성, 건전한 포용력, 포용성등을 들고 있으며³⁰⁾, 김 명훈은 카운슬링 면접에서 평가해야 할 카운슬러의 태도를 수용적, 허용적인 태도, 이해적 태도, 자기일치등을 들고있다³¹⁾.

또 정원식, 박성수는 카운슬러가 지녀야할 인성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의 이론을 다음과같이 집약하고 있다.

-
- 27) T. Allen, Effectiveness of Counselor trainess as a function of psychological openn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967, 14, pp. 247- 277
 - 28) O. H. Mower, Training in psychotherap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therapy, 1951, pp. 247-277.
 - 29) A. Combs, D. Super, The perceptual organization of effective counselo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963, 10, pp.222-226.
 - 30) 정 희경, 학생상담의 기술, 서울 : 현대 교육총서 출판사, 1970, pp.222-226.
 - 31) 김 명훈 (역), 학생 상담 심리학, 서울 : 대왕사, 1985, pp. 156 -160.

첫째, 자아의식이 뚜렷하고 둘째, 원숙한 적응상태를 이루며 셋째로, 인간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하며 넷째, 감정의 통제를 잘 할수있어야 하며 다섯째, 내담자에게 한 모델로서 작용하여야 한다.³²⁾

Rogers는 그의 경험과 연구를 통해 상담의 이론이나 방법보다 카운슬러의 태도에 대한 내담자의 지각이 더욱 중요하다고 결론 지었으며, 결국 유능한 카운슬러란 신용과 신뢰감을 갖게하는 매력있고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³³⁾

이상에서와 같이, 상담자는 사명감을 가지고 내담자와의 온정적이고 깊은 유대를 갖고 현실적 포부수준을 발전시켜 나갈수 있는 인성의 소유자이어야 함이 공통적 견해로 집약되는데, 이는 정지호의 연구결과에서 밝힌 교사로 는 자상하고, 다정 다감하며 명랑하고 사교적인 사람으로서의 교도교사와도 맥을 같이한다고 하겠다.³⁴⁾

2) 상담교사의 역할

상담자의 역할은 여러가지로 규정할수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계층적 차원에서 다음의 네가지로 분석하기로 하겠다.

① 행정적인 역할

상담자는 학생지도의 한 영역을 학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보조자이다.

32) 정원식, 박성수, 카운슬링의 원리, 서울 : 교육 과학사, 1984, pp. 36-39.

33) C. R. Rogers, On Becoming a person, Beston : Houghton Mifflin, 1961. 을 인용한 김충기, 이재찬 공역, 상담교사 심리치료, 서울 : 교육 과학사, 1986, p. 41.

34) 정 지호, "학생들이 기대하는 교도교사의 유형",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1981, pp. 46-47.

따라서 학교장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는 행동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② 상담적 역할

이것은 상담자가 수행해야 하는 주된 역할이다. 학생들이 믿고 내담할수 있는 상담자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인성적 특성을 보유하여 교내에서 비강제적인 학생지도의 기능을 발휘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③ 자문적 역할 (Consultation)

이것은 상담적 역할의 일부이지만, 그 대상이 학생이 아니기때문에 구분된다. 학교 전반에 대하여 특히 학생생활 지도에 대하여 학교장을 비롯하여 담임교사, 클럽지도자, 기타 일반교사에 대해 자문기관의 역할을 하는것이다.

④ 연구적인 역할

이 역할은 학생지도상의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여 지도방법을 고안해야 하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이다. 이 역할수행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면 상담자로서의 전문적 자질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³⁵⁾

35) 이 영숙, “중 고등학교의 상담실 운영실태및 학생의 상담요구 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90, pp. 8-9.

Ⅲ. 연구의 문제

본 연구에서 다룰 구체적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중학생들이 지각한 상담실 운영의 실태는 성별, 학년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가?

연구문제 2. 중학생들이 지각한 상담실의 역할은 성별, 학년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가?

Ⅳ. 연구의 방법및 절차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구로구에 소재해 있는 남, 여 중학교에 재학중인 남 181명, 여 217명 총 398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97.2%에 해당하는 387매를 회수하고, 그중 94.8%에 해당하는 367매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좀 더 알기 쉽게 나타낸다면 다음 < 표 IV- 1 > 과 같다.

< 표 IV- 1 > 연구의 대상 (): %

구 분		배 부	회 수	통계 처리
성 별	남	181	175 (96.6)	172 (46.9)
	여	217	212 (97.6)	195 (53.1)
계		398	387 (97.23)	367 (100)
학 년	1	116	114 (98.3)	105 (26.6)
	2	135	131 (97.0)	125 (34.0)
	3	147	142 (96.6)	137 (37.3)
계		398	387 (97.23)	367 (100)

2. 검사의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부록참조)는 문헌과 기존의 여러 교육 기관과 상담실 관련 기관의 설문지들을 참고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한후 연구자가 자작한 것으로 총 1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3. 자료의 처리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가지고 personal computer 용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program 를 이용하여 집단간의 차를 검증하기 위하여 χ^2 (Chi-Square) 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4. 연구의 절차

‘중학생이 지각한 상담실 운영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를 설정하고 이에 합당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국회도서관, 한국 교육 개발원, 각 대학의 교육학과 도서관및 상담실과 관련된 청소년 회관, YMCA 상담실, 각 중학교의 상담실을 중심으로 의제에 합당한 자료를 찾는데 주력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 표 N- 2 >와 같다.

< 표 N- 2 > 연구의 절차

시 기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1.10		91.11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연구 방향 설정	<						>											
문헌 연구및 이론적 배경 연구								<			>							
설문지 작성 배부 회수												<		>				
자료 처리													<		>			
분석및 결론													<		>			
논문 작성																<		>

V. 결과및 해석

1. 상담실 운영의 실태

1) 중학생들의 상담에 대한 필요성은 그들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 본 결과는 다음 < 표 1 > 과 같다.

< 표 1 > 상담에 대한 필요성

() : %

구분	문항	필요 하다	필요하지않다	아무래도관계없다	계
성 별	남	98 (56.9)	22 (12.8)	51 (29.6)	172 (46.9)
	여	149 (76.4)	10 (5.1)	35 (17.9)	195 (53.1)
	계	247 (67.3)	32 (8.7)	86 (23.4)	367 (100)
		$X^2 = 16.631$		$df = 3$	$p < 0.001$
학 년	1	80 (76.1)	8 (7.6)	16 (15.2)	105 (28.6)
	2	92 (54.7)	8 (6.4)	24 (19.2)	125 (34.1)
	3	75 (54.7)	16 (11.6)	46 (33.6)	137 (37.3)
	계	247 (67.3)	32 (8.7)	86 (23.4)	367 (100)
		$X^2 = 18.668$		$df = 6$	$p < 0.01$

위의 < 표 1 > 에서 나타내 보이듯이 성별의 경우에 있어서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은 16.631로 나타나 이는 $p < 0.001$ 의 수준에서 요구되는 X^2 의 값 16.268보다 약간 크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

혀졌다.

위의 결과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인 경우 학교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반응한 비율이 56.9% 인 반면 여학생은 76.4% 가 반응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서 상담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에 있어서 여학생들의 신체 생리적인 변화가 남학생들에 비하여 현저한 데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여진다.

위의 < 표 1 > 에서 나타내 보이듯이 학년의 경우에 있어서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은 16.668로 나타나 이는 $p = 0.01$ 의 수준에서 요구되는 X^2 의 값 16.812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의 사실에서 1학년의 경우 상담이 '필요하다'에 76.1% 이며, 2 학년에 73.3% 이며, 3 학년의 경우에 54.7% 로 나타나 고학년으로 올라 갈수록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반응하였다.

2) 중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그들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 본 결과는 다음 < 표 2 > 과 같다.

< 표 2 > 에서 나타내 보이듯이 성별의 경우에 있어서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은 8.169로 나타나 이는 $p = 0.05$ 의 수준에서 요구되는 X^2 의 값 5.991 보다 크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의 결과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 생활에 만족합니까'의 질문에 남학생의 경우 '만족하다'의 경우 23.3% 인 반면, '만족 하지만 불만족한 면이 많다'고 반응한 비율은 76.1% 이며, 여학생의 경우 '만족한다'에

12.3% 이며, '만족하지만 불만족한 면이 많다'에 86.2% 로 나타났다.

< 표 2 > 중학생의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

(): %

구분 문항		만족 하다	만족하지만 불만족한 면이 많다	계
성 별	남	40 (23.3)	131 (76.1)	172 (46.9)
	여	24 (12.3)	168 (86.2)	195 (53.1)
	계	64 (17.4)	299 (81.5)	367 (100)
		$X^2 = 8.169$ $df = 2$ $p < 0.05$		
학 년	1	22 (20.9)	83 (79.0)	105 (28.6)
	2	23 (18.4)	100 (27.2)	125 (34.1)
	3	19 (13.8)	116 (84.6)	137 (37.3)
	계	64 (17.4)	299 (81.4)	367 (100)
		$X^2 = 3.706$ $df = 4$ $p > 0.05$		

위의 사실에서 남학생이 학교 생활에서 불만족한 비율이 76.1% 인 반면, 여학생의 경우 86.2% 로 반응하여,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학교 생활에 불만족스러운 요인이 더욱 큰것으로 밝혀 졌다.

위의 < 표 2 > 에서 나타내 보이듯이 학년의 경우에 있어서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은 3.760로 나타나 이는 $p = 0.05$ 의 수준에서 요구되는 X^2 의 값 9.488 에 미치지 못하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 졌다.

위의 사실에서 학교 생활에 불만족한 면이 3 학년이 84.6% , 2 학년이 80.0% , 1 학년이 79.0% 로 반응해 학년이 높아 질수록 학교생활에 불만족한 요인이 크게 나타났다.

3) 중학생들의 학교생활에서 상담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의 질문에 그들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 본 결과는 다음 < 표 3 > 과 같다.

< 표 3 > 상담경험 유무

(): %

구분 문항		있 다	없 다	계
성 별	남	36 (20.9)	136 (85.7)	172 (46.9)
	여	58 (29.7)	135 (69.2)	195 (53.1)
	계	94 (25.6)	271 (73.8)	367 (100)

$$X^2 = 5.733$$

$$df = 3$$

$$p > 0.05$$

학 년	1	14 (13.3)	90 (85.7)	105 (28.6)
	2	30 (22.2)	95 (70.3)	125 (34.1)
	3	50 (36.4)	86 (62.7)	137 (37.3)
	계	94 (25.6)	271 (73.8)	367 (100)

$$X^2 = 21.174$$

$$df = 6$$

$$p > 0.01$$

위의 < 표 3 > 에서 나타내 보이듯이 성별의 경우에 있어서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은 5.733로 나타나 이는 $p = 0.05$ 의 수준에서 요구되는 X^2 의 값 7.815 에 미치지 못하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의 사실에서 남학생이 학교 생활에서 상담을 하지 않은 학생이 85.7% 인 반면 여학생은 69.2% 로 반응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 생활중 상담을 하지 않는 경우로 남학생들에 대한 상담프로그램과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 된다.

위의 < 표 3 > 에서 나타내 보이듯이 학년의 경우에 있어서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은 21.174로 나타나 이는 $p = 0.01$ 의 수준에서 요구되는 X^2 의 값 16.812 보다 크게 미치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의 사실에서 상담 경험이 없는 학년별 비율은 1 학년이 85.7% 로 가장 높으며, 2 학년이 70.3% , 3 학년이 67.2% 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1 학년이 중학교에 입학 하면서 상담실의 존재 여부와 상담실 활동의 부진등으로 신입생들에 대한 인식부족등으로 기인 할수 있겠다.

4) 중학생들이 상담을 받아 보았다면 도움이 되었는지의 질문에 그들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 본 결과는 다음 < 표 4 > 과 같다.

< 표 4 > 에서 나타내 보이듯이 성별의 경우에 있어서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은 2.480로 나타나 이는 $p = 0.05$ 의 수준에서 요구되는 X^2 의

의 값 5.991 에 미치지 못하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표 4 > 상담을 받았다면 도움이 되었는가

() : %

구분	문항	도움이 되었다	되지 않았다	모르겠다	계
성 별	남	26 (15.1)	43 (25.0)	103 (59.8)	172 (46.9)
	여	29 (14.8)	36 (18.4)	130 (66.6)	195 (53.1)
	계	55 (15.0)	79 (21.5)	233 (63.5)	367 (100)
		$X^2 = 2.480$		$df = 2$	$p > 0.05$
학 년	1	18 (17.1)	15 (14.2)	72 (68.5)	105 (28.6)
	2	16 (12.8)	22 (17.6)	87 (69.6)	125 (34.1)
	3	21 (15.3)	42 (30.6)	74 (54.0)	137 (37.3)
	계	55 (15.0)	79 (21.5)	233 (63.5)	367 (100)
		$X^2 = 12.593$		$df = 4$	$p < 0.05$

위의 사실에서 남학생이 상담의 도움을 모르겠다고 답변한 59.8% 보다 여학생이 66.8% 로 남학생의 학교 생활에서 문제의식을 상담해 주는 기능보다, 여학생의 학교 내에서의 문제의식에 상담의 신뢰성과 구체적인 원인 해결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기인된다고 보겠다.

위의 < 표 4 > 에서 나타내 보이듯이 학년의 경우에 있어서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은 12.593으로 나타나, 이는 $p = 0.05$ 의 수준에서 요구되는 X^2

의 값 9.488 보다 크게 나타나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의 사실에서 2 학년의 경우 69.6% 이며, 1 학년의 경우 68.5% 이며, 3 학년의 경우 54.0% 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3 학년의 경우 '도움이 되지 않았다'에 30.6% 로 반응해 1, 2 학년 보다 상담의 부정적인 반응에 배이상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수있다.

5) 중학생들이 상담을 받아 보지 않았다면은 그 이유는의 질문에 그들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 본 결과는 다음 < 표 5 > 과 같다.

< 표 5 > 상담을 받아보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 %

구분	문항	부끄럽고 용 기가 없어서	도움이 될것 같지 않아서	이상하게 생각	스스로 문제해결	계
성 별	여	32 (18.6)	30 (17.4)	11 (6.3)	62 (36.0)	172 (46.9)
	남	63 (32.3)	19 (15.2)	3 (1.5)	51 (13.9)	195 (53.1)
	계	95 (25.9)	56 (15.3)	14 (3.8)	113 (30.8)	367 (100)
		$X^2 = 18.063$		$df = 6$	$p < 0.01$	

위의 < 표 5 > 에서 보듯이 성별의 경우에 있어서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은 18.063로 나타나 이는 $p = 0.01$ 의 수준에서 요구되는 X^2 의 값 16.812 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의 사실에서 남학생의 경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가 36.0% 로

가장 높은 반면, 여학생의 경우 '상담을 받기가 부끄럽고 용기가 없어서'가 32.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사실로서 남학생은 상담을 받지 않고 스스로 고민을 해결하는 성향으로서 혼자서 해결책을 마련하여 잘 못한 판단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여학생의 경우 부끄럽고 용기가 없어서 상담을 받아보지 않았다면, 상담실이 학생들에게 부담스럽고 학습현장에서 친근감을 잃어버려서 상담실의 문턱이 아직까지 높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구분	문항	부끄럽고 용기가 없어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이상하게 생각	스스로 문제해결	계
1 학 년		33 (31.4)	14 (3.8)	3 (2.8)	44 (41.9)	105 (28.6)
	2	34 (27.2)	19 (15.2)	7 (5.6)	30 (24.0)	125 (34.1)
	3	28 (20.4)	23 (16.7)	4 (2.9)	39 (28.4)	137 (37.3)
	계	95 (25.9)	56 (15.3)	14 (13.8)	113 (30.8)	367 (100)
		$X^2 = 27.876$		$df = 12$	$p < 0.01$	

위의 < 표 5 > 에서 보는바와 같이 학년의 경우에 있어서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은 27.876으로 나타나, 이는 $p = 0.01$ 의 수준에서 요구되는 X^2 의 값 26.217보다 약간 크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의 사실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항목에는 1학년과 3학년이 가장 높으며, 상담을 받기가 부끄럽고 용기가 없어서의 항목에는 2학년이 가장 높은 반응이 나타났다.

6) 중학생들이 고민이나 중요한 문제가 있을때, 가장 먼저 의논하고 싶은 사람이 성별과 학년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 표 6 > 과 같다.

< 표 6 > 중요한 문제가 있을때 의논하고 싶은 사람
(): %

구분	문항	형제	친척	부모	상담교사	성직자	친구	계
성 별	남	46 (26.7)	5 (1.4)	29 (16.8)	5 (2.9)	1 (0.5)	84 (48.8)	172 (46.9)
	여	17 (8.7)	3 (1.5)	28 (14.3)	6 (3.0)	3 (1.5)	133 (68.2)	195 (53.1)
	계	63 (17.2)	8 (8.2)	57 (15.5)	11 (3.0)	4 (1.1)	217 (59.1)	367 (100)
		$X^2 = 25.968$			$df = 6$		$p < 0.001$	
학 년	1	22 (6.0)	1 (0.9)	21 (20.0)	2 (1.9)	2 (1.9)	57 (54.2)	105 (28.6)
	2	26 (20.8)	1 (0.8)	17 (13.6)	3 (2.4)	-	76 (60.8)	125 (34.1)
	3	15 (10.9)	6 (4.3)	19 (13.8)	6 (4.4)	2 (1.4)	84 (61.3)	137 (37.3)
	계	63 (17.2)	8 (8.2)	57 (15.5)	11 (3.0)	4 (1.1)	217 (59.1)	367 (100)
		$X^2 = 20.121$			$df = 12$		$p < 0.05$	

위의 < 표 6 > 에서 성별의 경우에 얻어진 X^2 의 값은 25.968로 이는 $p < 0.001$ 의 수준에서 요구되는 X^2 의 값 25.457 보다 약간 크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의 사실에서 남학생의 경우 고민이 있을 때에 친구와 의논한다는 학생이 48.8% 인 반면, 여학생은 68.3%로 반응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친구와 상의하며, 남학생은 두번째 의논하는 사람이 형제의 순이지만, 여학

생은 부모의 순으로 응답하여 남학생은 형제와 숨김없이 얘기하려지만, 여학생의 경우에는 형제보다 부모, 주로 어머니와 고민을 의논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위의 < 표 6 > 에서 나타내 보이듯이 학년차의 경우에 얻어진 X^2 의 값은 20.121으로, 이는 $p = 0.05$ 의 수준에서 요구되는 X^2 의 값 21.016보다 약간 미치지 못하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의 사실을 살펴보면, 3학년이 친구와 의논하는 반응이 61.3% 로 가장 높으며, 부모와 의논하겠다는 응답에 1 학년이 20.0% 로 가장 높은 응답을 하였다. 3학년의 경우 학교에서의 생활하는 시간이 집에 있는 시간보다 많기 때문에 같은 친구와 학교에서 의논하며, 1 학년의 경우 아직까지 부모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7) 중학생들이 학교 상담활동에 대해서 갖는 관심도가 성별과 학년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 표 7 > 과 같다.

< 표 7 > 학교 상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 : %

구분	문항	관심 있다	관심 없다	계
성 별	남	30 (17.4)	141 (81.9)	172 (46.9)
	여	60 (30.7)	132 (67.6)	195 (53.1)
	계	90 (24.5)	273 (74.4)	367 (100)
		$X^2 = 12.905$	$df = 3$	$p < 0.01$

학 년	1	29 (27.6)	74 (70.4)	105 (28.6)
	2	35 (28.0)	90 (72.0)	125 (34.1)
	3	26 (18.9)	109 (79.5)	137 (37.3)
	계	90 (24.5)	273 (74.4)	367 (100)
		$X^2 = 7.781$	$df = 6$	$p > 0.05$

위의 < 표 7 > 에서 성별의 경우에 얻어진 X^2 의 값은 12.905로, 이는 $p = 0.01$ 의 수준에서 요구되는 X^2 의 값 11.345 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의 < 표 7 > 에서 나타내 보이듯이 학년의 경우에 있어서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은 7.781 으로 나타나, 이는 $p = 0.05$ 의 수준에서 요구되는 X^2 의 값 12.592에 미치지 못하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8) 중학생들이 현재의 상담실 운영에 대하여 갖고있는 생각이 성별과 학년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 8 > 과 같다.

< 표 8 > 에서 성별의 경우에 얻어진 X^2 의 값은 13.995로 나타나 이는 $p = 0.01$ 의 수준에서 요구되는 X^2 의 값 11.345 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의 < 표 8 > 에서 나타내 보이듯이 학년의 경우에 있어서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은 13.174으로 나타나, 이는 $p = 0.05$ 의 수준에서 요구되는 X^2 의 값 12.592보다 약간 크게 나타나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밝혀졌다.

〈 표 8 〉 상담실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가
() : %

구분		문항	현재	좋다	개선해서	운영	없어도	좋다	계
성 별		남	34	116	19	172			
			(19.7)	(67.4)	(11.0)	(46.9)			
		여	15	157	16	195			
			(7.6)	(80.5)	(8.2)	(53.1)			
		계	49	273	35	367			
			(13.4)	(74.4)	(9.5)	(100)			
				$X^2 = 13.99$	$df = 3$	$p < 0.01$			
		학 년	1	24	69	9	105		
	(22.8)		(65.7)	(8.5)	(28.6)				
2	15		94	12	125				
	(12.0)		(75.2)	(9.6)	(34.1)				
3	10		110	14	137				
		(7.2)	(30.0)	(10.2)	(37.3)				
		계	49	273	35	367			
			(13.4)	(74.4)	(9.5)	(100)			
				$X^2 = 13.174$	$df = 6$	$p < 0.05$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 학년의 경우 개선해서 운영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80.2%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담실 운영이 없어도 좋다는 10.2% 를 합하면, 90.4% 가 현재 상담실 운영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어 이에 대한 상담실의 제도 개선과 학생들이 원하는 상담실 운영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2. 상담실의 역할

1) 중학생들이 앞으로 상담 지도를 해줄때에, 어떤 문제에 중점을 두고 생활 지도해 주기를 바랍니까의 질문에 그들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 표 9 > 과 같다.

< 표 9 > 중심적인 생활지도 방향은

(): %

구분 문항		진로 결정	친구와 잘지내 는 방법	개인 문제 해결	술 담배 유해성 지도	이성 성지식 지도	기 타	계
성 별	남	50 (29.0)	17 (9.8)	46 (26.7)	11 (6.3)	31 (18.0)	14 (8.1)	172 (46.9)
	여	17 (9.8)	25 (12.8)	52 (26.7)	6 (3.1)	30 (15.4)	8 (4.1)	195 (53.1)
	계	124 (33.8)	42 (11.4)	98 (26.7)	17 (4.6)	61 (16.6)	22 (6.0)	367 (100)
		$X^2 = 11.261$			df = 6		p > 0.05	
학 년	1	20 (19.0)	17 (16.2)	38 (36.2)	7 (6.7)	21 (21.0)	1 (0.9)	105 (28.6)
	2	45 (36.0)	10 (8.0)	35 (28.0)	6 (4.8)	18 (14.4)	9 (7.2)	125 (34.1)
	3	59 (43.1)	15 (10.9)	25 (18.2)	4 (3.2)	22 (16.1)	12 (8.8)	137 (37.3)
	계	124 (33.8)	42 (11.4)	98 (26.7)	17 (4.6)	61 (16.6)	22 (6.0)	367 (100)
		$X^2 = 32.615$			df = 12		p < 0.01	

위의 < 표 9 > 에서 나타내 보이듯이 성별의 경우에 있어서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은 11.262로 나타나 이는 $p = 0.05$ 의 수준에서 요구되는 X^2 의 값 12.592 보다 미치지 못하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

혀졌다.

위의 사실에서 남학생의 경우 진로지도가 29.0% 인 반면 여학생은 37.9%로 진로지도에 중점적인 지도를 원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생활지도에서 진학 문제나 장래에 대한 진로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것을 알수있다.

위의 < 표 9 > 에서 나타내 보이듯이 학년의 경우에 있어서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은 32.615으로 나타나, 이는 $p = 0.01$ 의 수준에서 요구되는 X^2 의 값 25.217보다 크게 나타나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의 사실에서, 1 학년은 친구와 잘 지내는 법이 36.2% 로 생활지도에서 비율이 가장 높으며, 이는 중학교에 진학해서 친구들과 적응하는데 어려워하는 것으로 생각할수 있으며 2,3 학년은 진로 결정에 각각 36.0% , 43.1% 로 반응해 2 학년때 부터 진학에 관한 관심을 나타내는 것을 볼수 있으며 3 학년의 경우 거의 절반에 달하는 학생이 앞으로의 진로 결정에 관하여 고민하고 있는것으로 생각한다.

2) 중학생들이 상담하는 시간이 언제가 좋다고 생각합니까의 질문에 그들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 표 10 > 과 같다.

< 표 10 > 에서 나타내 보이듯이 성별의 경우에 있어서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은 10.098 로 나타나 이는 $p = 0.05$ 의 수준에서 요구되는 X^2 의 값 9.488 보다 크게 미치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표 10 > 상담하기 적당한 시간은

() : %

구분	문항	언제든지	귀가 시간	휴식 시간	휴일날	계
성 별	남	86 (50.0)	34 (19.8)	25 (14.3)	24 (14.0)	172 (46.9)
	여	118 (60.5)	34 (17.4)	31 (15.9)	11 (5.6)	195 (53.1)
	계	204 (55.6)	68 (18.5)	56 (15.3)	35 (9.5)	367 (100)
		$\chi^2 = 10.098$		df = 4		p < 0.05
학 년	1	52 (49.5)	24 (19.8)	16 (15.2)	13 (12.4)	105 (28.6)
	2	67 (53.6)	28 (22.4)	18 (14.4)	9 (7.2)	125 (34.1)
	3	85 (68.0)	16 (12.8)	22 (17.6)	13 (10.4)	137 (37.3)
	계	204 (55.6)	68 (18.5)	56 (15.3)	35 (9.5)	367 (100)
		$\chi^2 = 12.353$		df = 8		p > 0.05

위의 사실에서, 남녀 학생모두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을 할수가 있다고 생각하며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더 적극적으로 언제든지 상담의 필요성에 따라 상담을 하겠다고 나타났다.

위의 < 표 10 > 에서 나타내 보이듯이 학년의 경우에 있어서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은 12.353으로 나타나, 이는 $p = 0.05$ 의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15.507보다 미치지 못하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의 사실에서, 3 학년이 68.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으로서,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에 임하겠다는 적극성을

표현한것으로 나타났다.

3) 상담하는 위치는 어떤곳이 좋다고 생각합니까의 질문에 그들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 표 11 > 과 같다.

< 표 11 > 상담실의 위치는 어떤곳이 좋은가

() : %

구분 문항		자료풍부 정보제공	학생선생님 출입없는곳	조용하며 분 위기좋은곳	편안한 기 휴식처	타	계
성 별	남	22 (12.8)	21 (12.2)	28 (16.3)	87 (50.6)	10 (5.8)	172 (46.9)
	여	24 (12.3)	26 (13.3)	28 (14.4)	112 (57.4)	5 (2.6)	195 (53.1)
	계	46 (12.5)	47 (12.8)	56 (15.3)	199 (54.2)	15 (4.1)	367 (100)
		$X^2 = 8.016$		$df = 5$	$p > 0.05$		
학 년	1	11 (10.5)	11 (10.5)	24 (22.9)	51 (51.4)	4 (4.8)	105 (28.6)
	2	15 (12.0)	20 (16.0)	15 (12.0)	69 (55.2)	3 (2.4)	125 (34.1)
	3	20 (14.6)	16 (11.7)	17 (12.4)	76 (55.5)	8 (5.8)	137 (37.3)
	계	46 (12.5)	47 (12.8)	56 (15.3)	199 (55.5)	15 (4.1)	367 (100)
		$X^2 = 13.610$		$df = 10$	$p > 0.05$		

위의 < 표 11 > 에서 나타내 보이듯이 성별의 경우에 있어서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은 8.016 로 나타나 이는 $p = 0.05$ 의 수준에서 요구되는 X^2 의 값 13.388 에 미치지 못하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의 사실에서, 남학생의 경우 편하게 쉴수 있는곳에 50.6% 가 응답한 반

면에 여학생은 57.4% 가 응답하여 편안한 휴식처로 상담실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조용하며 아늑하여서 분위기가 온화한 곳을 두번째로 학생들이 응답하였다. 이에 상담실은 학생들이 마음 편하게 부담감을 주지 아니하고 휴식할수 있는 장소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 표 11 > 에서 나타내 보이듯이 학년의 경우에 있어서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은 13.610으로 나타나, 이는 $p = 0.05$ 의 수준에서 요구되는 X^2 의 값 18.307 에 미치지 못하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의 사실에서, 편하게 쉴수 있는곳이 학년 전체에서 절반이 넘는것을 볼 때에 학생들이 요구하는 이상적인 상담실의 위치는 충분한 공간 속에서 학업에 시달리는 심신을 상담실에서 충분히 휴식하는 장소로서 원하는것을 알 수있다.

4) 여러분은 상담내용의 비밀 보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의 질문에 그들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 표 12 > 과 같다.

< 표 12 > 에서 나타내 보이듯이 성별의 경우에 있어서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은 2.441로 나타나 이는 $p = 0.05$ 의 수준에서 요구되는 X^2 의 값 7.815 에 미치지 못하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표 12 > 상담내용의 비밀 보장에 대해서

() : %

구분	문항	절대 보장	공개되어도 좋다	계
성 별	남	157 (88.4)	13 (7.6)	172 (46.9)
	여	182 (93.3)	13 (6.6)	195 (53.1)
	계	339 (92.4)	26 (7.1)	367 (100)
		$\chi^2 = 2.441$	$df = 3$	$p > 0.05$

위의 사실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상담내용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남학생의 경우 88.4% 인 반면에 여학생은 93.3% 로 비밀보장에 대하여 적극적인 응답을 한것으로 나타났다.

학 년	1	98 (93.3)	7 (6.6)	105 (28.6)
	2	114 (91.2)	9 (7.2)	125 (34.1)
	3	127 (92.7)	10 (7.3)	137 (37.3)
	계	339 (92.4)	26 (7.1)	367 (100)
		$\chi^2 = 3.393$	$df = 6$	$p > 0.05$

위의 < 표 12 > 에서 나타내 보이듯이 학년의 경우에 있어서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은 3.393 으로 나타나, 이는 $p = 0.05$ 의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12.592보다 미치지 못하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의 사실에서, 학년에 관계없이 상담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에 90% 이상 원하고 있으며, 학생과 상담교사와의 비밀이 누설되었을때에 학생들에게 상당한 신뢰성의 결여와 상담실의 불신을 초래할수 있는것을 짐작할수 있다.

4) 여러분은 상담교사가 무슨일을 한다고 생각합니까의 질문에 그들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 표 13 > 과 같다.

< 표 13 > 상담교사가 무슨일을 한다고 생각하는가
(): %

구분 문항		학생의 IQ 적성 가정 환경 조사	학칙위반 학생 지도	고민있으면 누구나상담	고민을 스스로 해결토록 도와 준다	계
성 별	남	15 (8.7)	7 (4.1)	48 (27.9)	100 (58.1)	172 (46.9)
	여	7 (3.6)	8 (4.1)	45 (23.1)	132 (67.7)	195 (53.1)
	계	22 (6.0)	15 (4.1)	93 (25.3)	232 (63.2)	367 (100)
		$X^2 = 6.269$		$df = 4$	$p > 0.05$	
학 년	1	6 (5.7)	2 (1.9)	19 (18.1)	78 (74.2)	105 (28.6)
	2	7 (5.6)	6 (4.8)	42 (33.6)	67 (53.6)	125 (34.1)
	3	9 (6.6)	7 (5.1)	32 (23.4)	87 (63.5)	137 (37.3)
	계	22 (6.0)	15 (4.1)	93 (25.3)	232 (63.2)	367 (100)
		$X^2 = 13.897$		$df = 8$	$p > 0.05$	

위의 < 표 13 > 에서 나타내 보이듯이 성별의 경우에 있어서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은 6.269 로 나타나 이는 $p = 0.05$ 의 수준에서 요구되는 X^2 의 값 9.488 보다 크게 미치지 못하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의 사실에서, 상담교사의 주된 업무로는 학생들의 고민을 상담을 통하여 스스로 해결할수 있도록 조력자로서의 기대하고 있으며,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지 누구나 상담할수 있도록 개방적이며 적극적인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남학생의 경우 58.1% 인 반면 여학생이 67.7%로 고민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로서의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 표 13 > 에서 나타내 보이듯이 학년의 경우에 있어서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은 13.897으로 나타나, 이는 $p = 0.05$ 의 수준에서 요구되는 X^2 의 값 15.507보다 미치지 못하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의 사실에서, 상담교사가 학생들의 고민을 상담을 통하여 스스로 해결하도록 도와준다는 1 학년이 74.2% 로 가장 높으며, 3 학년이 63.5% ,2 학년이 53.6%의 순으로 밝혀져, 1 학년이 고민있는 학생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것이 높게 나타났다.

6) 중학생들이 원하는 상담선생님의 질문에 그들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 표 14 > 과 같다.

< 표 14 > 원하는 상담 선생님은

(): %

구분	문항	성실하게 대해 주시는 분	비밀누설을 하지 않을분	평등 하고 숨김없는분	계
성 별	남	42 (24.4)	24 (14.0)	102 (59.3)	172 (46.9)
	여	46 (23.6)	19 (9.7)	128 (65.6)	195 (53.1)
	계	88 (24.0)	433 (11.7)	230 (62.7)	367 (100)
		$X^2 = 3.474$ $df = 4$ $p > 0.05$			
학 년	1	16 (15.2)	15 (14.3)	73 (69.5)	105 (28.6)
	2	35 (28.0)	16 (12.8)	70 (56.0)	125 (34.1)
	3	37 (27.0)	12 (8.8)	87 (23.7)	137 (37.3)
	계	88 (24.0)	43 (11.7)	230 (63.5)	367 (100)
		$X^2 = 11.597$ $df = 8$ $p > 0.05$			

위의 < 표 14 > 에서 나타내 보이듯이 성별의 경우에 있어서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은 3.474로 나타나 이는 $p = 0.05$ 의 수준에서 요구되는 X^2 의 값 9.488에 미치지 못하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의 사실에서,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자신에 대해서도 숨김없이 솔직하고 진실하게 상담하는 선생님을 남학생이 59.3%인 반면, 여학생은 65.6%로 더욱 높은 반응을 보인것을 알수있다.

위의 < 표 14 > 에서 나타내 보이듯이 학년의 경우에 있어서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은 11.597으로 나타나, 이는 $p = 0.05$ 의 수준에서 요구되는 X^2 의 값 15.057에 미치지 못하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의 사실에서, 상담교사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솔직하게 학생 자신들의 입장에서 숨김없이 진실한 상담교사를 1 학년이 69.5% 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3 학년이 63.5% 이며, 2 학년이 56.0% 의 순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 순간순간에 느끼는 경험에 솔직해야 하며 상담교사의 일치된 태도와 자발성은 학생들에게 현실적 근거에서 믿을수 있고 위험감 없이 공유할수 있도록 원하는 것을 알수있다.

7) 중학생들이 상담교사에 대한 느낌에 대한 질문에 그들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 표 15 > 과 같다.

< 표 15 > 상담교사에 대한 느낌은

() : %

구분	문항	보통	교사 이해하는	협조자	도움줄수	없다	계
성 별	남	44 (25.6)	111 (64.5)	15 (8.7)	172 (46.9)		
	여	42 (21.5)	137 (70.3)	12 (6.2)	195 (53.1)		
	계	86 (23.4)	248 (67.6)	27 (7.4)	367 (100)		
		$X^2 = 2.340$		df = 3		$p > 0.05$	

위의 < 표 15 > 에서 나타내 보이듯이 성별의 경우에 있어서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은 2.340로 나타나 이는 $p = 0.05$ 의 수준에서 요구되는 X^2 의

값 7.815에 미치지 못하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 년	1	17 (16.2)	79 (75.2)	8 (7.6)	105 (28.6)
	2	24 (19.2)	89 (71.2)	9 (7.2)	125 (34.1)
	3	45 (32.8)	80 (58.4)	10 (7.3)	137 (37.3)
	계	86 (23.4)	248 (67.6)	27 (7.4)	367 (100)
		$\chi^2 = 12.138$ $df = 6$ $p > 0.05$			

위의 결과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상담교사에 대한 느낌은, '학생을 이해하는 협조자'가 64.5%이며, '보통교사와 같이 생각한다'가 25.6%이며, '도움을 줄수 없다'가 8.7% 인 반면, 여학생의 경우 '학생을 이해하는 협조자'가 70.3%이며, '보통교사와 같이 생각한다'가 21.5%이며, '도움을 줄수 없다'가 6.2% 의 순으로 밝혀졌다.

위의 사실에서, 상담교사는 학생을 이해하는 협조자라고 생각하는 남학생이 64.5% 인 반면 여학생은 70.3% 로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의 경우 보통교사와 같이 생각하는 반응이 25.6% 로 밝혀져 상담교사의 인식이 여학생보다 더욱 낮게 나타났다.

위의 < 표 15 > 에서 나타내 보이듯이 학년의 경우에 있어서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은 12.138으로 나타나, 이는 $p = 0.05$ 의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12.592에 약간 미치지 못하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의 사실에서, 상담교사를 학생을 돕는 협조자라고 생각하는 반응이 1학년이 75.2%이며, 2학년이 71.2%이며, 3학년이 58.4%의 순으로 나타나, 학년이 저학년으로 갈수록 협조자로서의 상담교사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으며, 3학년의 경우 상담교사를 보통교사와 같이 생각한다는 반응이 32.8%로 나타나 입시공부에 있는 3학년생에게 상담교사의 역할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8) 중학생들이 상담교사에게 상담을 하는 친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의 질문에 그들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 표 16 > 과 같다.

< 표 16 > 상담하는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 : %

구분	문항	고민이 많다	외롭고 의지할곳없다	동정이가는 정도	계
성 별	남	65 (37.8)	46 (26.7)	54 (31.4)	172 (46.9)
	여	108 (55.4)	55 (28.7)	23 (11.8)	195 (53.1)
	계	173 (47.1)	101 (27.5)	77 (21.0)	367 (100)
		$X^2 = 24.224$		$df = 4$	$p < 0.001$
학 년	1	48 (45.7)	31 (29.5)	24 (22.9)	105 (28.6)
	2	61 (48.8)	35 (28.0)	22 (17.6)	125 (34.1)
	3	64 (46.7)	35 (25.5)	31 (22.6)	137 (37.3)
	계	173 (47.1)	101 (27.5)	77 (21.0)	367 (100)
		$X^2 = 5.1468$		$df = 8$	$p > 0.05$

위의 < 표 16 > 에서 나타내 보이듯이 성별의 경우에 있어서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은 24.224 으로 나타나 이는 $p = 0.05$ 의 수준에서 요구되는 X^2 의 값 18.465 보다 크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의 사실에서, 상담교사에 상담하는 학생은 고민이 많은 학생이라고 판단하는 학생이 남학생이 37.8% 인 반면 여학생은 55.4% 로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은 상담하는 친구에게 동정이 가는 정도가 31.4%로 높게 나타나 남학생들이 상담교사와 상담하는 동료학생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 표 16 > 에서 나타내 보이듯이 학년의 경우에 있어서 실제로 얻어진 X^2 의 값은 5.146으로 나타나, 이는 $p = 0.05$ 의 수준에서 요구되는 X^2 의 값 15.507에 미치지 못하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의 사실에서, 상담교사와 상담하는 친구에 대하여 고민이 많은 친구라고 생각하는 반응이 2 학년이 48.8%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 학년이 46.7% 이며, 1학년이 45.7% 의 순으로 나타났다.

Ⅵ.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중학생들의 일반적인 문제행동을 분석하고 학생들이 지각하는 상담실 운영의 실태와 역할이 성별과 학년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것인가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도구는 문헌과 기존의 여러 교육기관과 상담실 관련 기관의 설문지들을 참고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한 후 연구자가 작성한 것이다. 이 질문지를 서울시 구로구에 소재해 있는 남, 여 중학교에 재학중인 남 181명, 여 217명 총 398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97.2%에 해당하는 387매를 회수하고, 그중 94.8%에 해당하는 367매를 처리 하였다. 처리에 있어서는 personal computer 용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program 을 이용하여 집단간의 차를 검증하기 위하여 X^2 (Chi-Square) 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상담실의 운영실태

중학생들은 성별, 학년에 관계없이 상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3학년의 경우 상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상담에 대해 무관심한 반응도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 생활을 묻는 질문에는 성별, 학년별에 관계없이 불만족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학생의 경우 불만족한 면이 남학생보다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상담 경험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학년이 올라 갈수록 상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이 도움이 되었느냐에 대하여 성별과 학년에 관계없이 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상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신뢰성의 결여를 반영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상담을 받아보지 못한 이유는 남학생의 경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며, 여학생의 경우에는 상담을 받기가 부끄럽고 용기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들이 고민이나 중요한 문제가 있을때 먼저 의논하는 사람으로는 친구, 형제, 부모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담교사와 상담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3%에 지나지 않았다. 학교 상담실의 운영에 대한 관심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낮았으며 현재의 상담실 운영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3학년의 경우 빈도가 더욱 있다.

2) 상담실의 역할

상담교사의 상담내용으로 남학생은 진로 지도, 개인문제 해결, 성지식 지도의 순으로 생활지도를 원하고 있으며 여학생은 개인적인 문제, 이성, 성지식 지도, 친구와 잘 지내는 법을 선택하였으며 상담하기 적당한 시간으로는 성별, 학년 구분없이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실의 위치로는 휴식처로 편안하고 조용하고 아늑하며 분위기 좋은 곳으로 선생님의 출입 또한 없는 곳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상담교사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고민을 덜어주고 스스로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주로 원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바라

는 상담교사로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자신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숨김이 없는분을 지적하고 있다. 상담교사에 대한 느낌은 학생을 이해하는 협조자라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 학년의 경우 일반교사와 같다는 반응이 높아 상담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교사에게 상담하는 친구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은 학생으로 보고 있으며 남학생의 경우 동정이 가는 정도로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2. 결 론

1. 중학생이 지각하는 상담의 필요성은 성별과 학년의 구별없이 모두 높았다. 이는 종전의 전통적인 가정에서 해결할수 있었던 제반 문제들을 가정의 기능의 약화로 학교가 맡게 된 결과로 추측된다.

2. 중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의 정도는, 만족 17.4% , 불만족 81.5% 로 불만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받는 압박감이 증폭되어 학업과 교우관계등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3. 상담경험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담을 받아보지 않은 이유는 남학생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여학생은 부끄럽고 용기가 없기 때문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는 상담실이 학생들에게 쉽게 찾아 갈수 없는곳으로 지각되는 한편, 상담교사의 문제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4. 고민이나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가장먼저 의논하고 싶은 사람으로는 친구가 지적되었다. 상담교사와 의논한다는 학생은 3% 에 지나지 않아 상담교사의 존재는 학생들의 관심밖에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5. 학생들의 대다수는 현재의 상담실 운영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상담실의 운영에서 학생들의 관심을 끌수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하지 못하고 홍보활동도 부족한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6. 상담지도의 방향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남학생의 경우는 진로결정이며 여학생의 경우는 개인적인 문제해결과 친구들과 잘 지내는 방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남학생은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벌써부터 관심을 높게 가지고 있으며, 여학생은 소심한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갈등을 겪고 있으며 교우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7. 상담실의 위치로는 편안한 휴식처와 조용하며 아늑하여 분위기 좋은 곳을 원하고 있다. 또한 선생님의 출입이 없는곳을 원하고 있으며 상담의 시간은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응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8. 상담교사의 업무로는 학생들의 고민을 상담을 통하여 스스로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첫째로 꼽고 있으며,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자신에 대해서도 숨김이 없는 분을 상담교사로 원하고 있다. 3 학년의 경우 상담교사를 보통교사와 같이 생각한다는 반응이 32.8% 로 증가하여 3 학년생에게 상담교사의 역할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생활지도의 중심적인 기능을 맡아야 될 상담실이 학생들이 마음놓고 이용할수 있는 곳으로 옮겨질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2) 상담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상담실을 찾지 않고 있는 학생들을 상담실이 먼저 찾아가는 적극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3) 상담을 받은 학생중 상담의 도움을 모르겠다는 반응이 높으므로 상담의 질을 높일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4) 중요한 문제가 있을때 의논대상자로 상담교사를 택하는 경우가 극히 적으므로 상담교사의 의논 대상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것이다.

5) 상담의 역할에서 남학생은 진로결정, 여학생은 개인적인 문제해결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것이다.

6) 상담교사의 역할을 일반교사와 같이보는 학생들도 많이 있으므로 상담교사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하여야 할것이다.

참 고 문 헌

- 공석영, 「생활지도론」, 서울 : 예일출판사, 1980.
- 김광일 외, “고등학교 재학생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정신건강연구 제 3집, 한양대 정신건강연구소, 1985.
- 김기석 역, C. Rogers, 「상담과 심리치료」, 중앙적성출판부, 1972.
- 김명훈, 「학생상담 심리학」, 서울 : 대왕사, 1985.
- 김병성, 정영애, 이인호, “중등학교 자율화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종합대책”,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82.
- 김영채 외, 「교과운영을 통한 생활지도」, 지도상담 제 6집, 계명대학교출판부, 1981.
- 김정섭, 「상담실의 설치와 운영」, 서울시 카운슬러 협의회편, ‘학교 카운슬러의 실제’, 서울 : 박영사, 1975.
- 김정환, ‘인간화 교육의 역사적 배경 과 80년대 서울 교육’, 서울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1908.
- 김충기, 「생활지도 교육」, 서울 : 학문사, 1983.
- 김충기, 이재창, 「상담과 심리치료」, 서울 : 교육과학사, 1985.
- 김충기,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성원사, 1989.
- 김충기, 박성수, 이재창, 「한국생활지도발전과 전망」, 서울 : 배영사, 1989.
- 대한교육연합회, 「한국교육연감」, 서울 : 대한교육 연합회, 1988.

- 대한 카운슬러 연구협의회, 「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중앙 적성출판사, 1988.
- 문교부 훈령 제 227호, 1972.
- 박성수, 「생활지도」, 서울 : 정민사, 1988.
- 박성수 외, 「한국카운슬링의 발전계획」, 한국카운슬러협회, 1985.
- 이봉우 역, R. May, 「카운셀링의 기술」, 서울 : 분도출판사, 1979
- 이성진, 「학교에서의 행동수정」, 서울 : 박영사, 1972.
- 이영덕, 정원식, 「생활지도의 이론과 실제」, 서울 : 교육과학사, 1982.
- 이영숙, “중고등학교 상담실 운영실태및 학생의 상담요구 분석”,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90.
- 이장호, 「상담심리학 입문」, 서울 : 박영사, 1983.
- 이형득, 「집단상담의 실제」, 서울 : 형설출판사, 1983.
- 이형득외 공저, 「상담의 이론적 접근」, 서울 : 형설출판사, 1982
- 이희도, 김영채, 변창진 공역, 「학교상담의 사례연구」, 서울 : 중앙적성연구소, 1979.
- 정원식, 박성수, 「카운슬링의 원리」, 서울, 교육과학사, 1984.
- 정지호, “학생들이 기대하는 교도교사의 유형”,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1981.
- 정희경, 「학생상담의 기술」, 서울 : 현대 교육총서 출판사, 1970.
- 체육 청소년부, 「청소년 백서」, 서울 : 동광문화사, 1991
- 최정웅, 「산업사회에 있어서 청소년 교육의 문제」, 효성여자대학 학생생활지도연구소, 생활지도, 제 3집, 1985.

한국 교육학연구사 위원회, '한국 교육학연구사 <1945 -1972>', 서울 : 한국교육학회, 1973.

홍경자 역, Glasser, 「카운셀링 사례집」, 서울 : 형설출판사, 1989.

홍경자, 「성장을 위한 생활지도」, 서울 : 탐구당, 1990.

황웅연, 「현대 생활지도」, 서울 : 교육출판사, 1984.

Allen, T. , Effectiveness of Counselor trainess as a function of psychological openn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967.

Combs, A. , Super, D. , The perceptual organization of effective counselo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963.

George, R. A. , Cristiani, T. S. , Theory, Methods and Processes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1981

Humphrey a Traxler, 1954.

Humphreys, J. and Traxler, A Guidance Service, Chicago : Science Research Associations, 1954.

Jones, A. J. , Principles of Guidance, N.Y. : McGraw -Hill Book Co., 1951

Lee, J. M. , Pallone, N. J. , Guidance and Counseling in schools, N.Y. : McGraw, Hill Book Co. , 1966

Mathewson, R. H. , Guidance Policy and Practice, N. Y. : Harper, 1962

Mower, O. H. , Training in psychotherap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therapy, 1951.

Patterson, C. H. , An Introduction to Connseling in the school, N.Y. : Happer Row, Publishers, 1974.

Rogers, C. R. , On Becoming a person, Beston : Houghton Mifflin, 1961.

Williamson, E. G. , Value Orientations in Counseling Personnel and Guidance, 1958.

Wrenn, C. G. , The Counselor in a changing Worad, Commisson on Guidance in American School, A.P.G.A. Washington, 1962.

중학생이 지각하는 상담실 운영에 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학과공부에 열심하는 여러분에게 번거로운 부탁을 하게되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 질문지는 학교내의 보dana은 상담실 운영활동에 관한 연구로써, 학교내의 상담활동과 학생 여러분의 상담요구 사항을 파악하여, 학교상담의 필요성을 조사하고, 학교내 상담실의 현황과 개선점을 밝힘으로서 학교 상담제도 정착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질문지는 연구의 목적에만 사용되며, 절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담없이 여러분의 평소에 경험하고 느낀점과 생각하고 있었던 내용을 솔직히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 년 8 월 25 일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최 상익 드림

다음 사항중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해주십시오.

1. 성별 : 남 _____ 여 _____
2. 학년 : 1학년 _____ 2학년 _____ 3학년 _____
3. 종교 : 기독교 _____ 천주교 _____ 불교 _____ 기타 _____ 무교 _____
4. 형제순위 : 첫째 _____ 둘째 _____ 셋째이상 _____
5. 부모학력 : 대졸이상 _____ 고졸 _____ 중졸이하 _____
부 : _____
모 : _____

1. 여러분은 학교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_____ 필요하다. _____ 필요하지 않다.

_____ 아무래도 관계없다.

2. 학교생활에 어느정도 만족한다고 생각합니까?

_____ 만족한다. _____ 만족하지만 불만족한면이 많다.

3. 여러분의 학교에서 상담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_____ 있다. _____ 없다.

4. 상담을 받아 보았다면 도움이 되었나요?

_____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_____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

_____ 도움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5. 상담을 받아보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_____ 상담을 받기가 부끄럽고 용기가 없어서

_____ 의논해도 도움이 될것 같지 않아서

_____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것 같아서

_____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6. 여러분은 고민이나 문제가 있을때, 가장 먼저 의논하고 싶은 사람은?

____ 형제 ____ 친척 ____ 부모
____ 상담교사 ____ 목사, 신부, 스님 ____ 친구

7. 학교 상담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____ 관심을 가지고 있다. ____ 관심이 없다.

8. 현재의 상담실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____ 현재의 방법이 좋다.
____ 현재보다 개선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____ 없어도 좋다.

9. 앞으로 상담지도를 해줄때에 어떤문제에 중점을 두고 생활지도 해 주
기를 원합니까?

____ 장래의 진로결정에 관한 지도
____ 친구들과 잘 지내는 법
____ 개인적인 문제 (나쁜버릇, 고민거리) 를 해결하는 방법
____ 술, 담배, 본드의 유해성에 관한 지도
____ 이성관계, 성지식에 관한 지도
____ 기타

10. 여러분은 상담하는 시간이 언제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____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____ 귀가시간에

____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____ 휴일날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11. 여러분은 상담실의 위치가 어떤곳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____ 자료가 풍부하여 정보를 제공받을수 있는 곳

____ 학생들이나 선생님의 출입이 없는곳

____ 조용하며 아늑하여 분위기 좋은곳

____ 마음놓고 편하게 쉴수 있는곳

____ 기타

12. 여러분은 상담내용의 비밀보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____ 절대 보장되어야 한다 ____ 공개되어도 좋다.

13. 여러분은 상담교사가 무슨일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____ 학생의 IQ, 적성, 가정환경등을 조사한다.

____ 학칙위반 학생을 지도한다.

____ 고민이 있는 학생들은 누구나 상담한다.

____ 개인의 고민을 상담을 통해서 스스로 해결하도록 도와준다.

14. 여러분이 원하는 상담선생님은?

- _____ 학생의 문제에 성실하게 대해주시는 분
- _____ 상담에 비밀누설을 하지않을 믿음이 가는 분
- _____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자신에 대해서도 숨김이 없는분

15. 상담교사에 대한 느낌은?

- _____ 보통교사와 같이 생각한다.
- _____ 학생을 이해하는 협조자라 생각한다.
- _____ 도움을 줄수 없다고 생각한다.

16. 여러분은 상담교사에게 상담을 하는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_____ 고민이 많은 사람이라고
- _____ 외롭거나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이라고
- _____ 조금 동정이 가는 정도로 생각함

ABSTRACT

**A Study on the Realities of the Operation and Role of the Counselling
Rooms Perceived by the Middle School Pupils.**

**Choi, Sang-ik
Major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Graduated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is aimed at analyzing the general problematic behavior at the school the middle school students has, and elucidating the actual condition of operations and role of the counselling room perceived by the students when life guidance is regarded as one of methods for attaining the educational aim.

In summary, as a result, the following conclusion was drawn;

1) The actual condition of operations of the counselling room.

The middle school pupils would feel the need for counselling irrespective of sexes school years, and it was shown that the 3rd-grade pupils would conceive the need for counselling but show an indifferent response to counselling very much. It was shown that the middle school pupil felt dissatisfied with their school life irrespective of sex and school year. In particular, it was shown that the middle schoolgirls gave a more high

dissatisfied with the school life than the middle schoolboys. With respect to an experience in school counselling, it was shown that the middle schoolboys had a poorer experience of school counselling than the middle schoolgirls, and that the higher their school years were the more experiences they had of counselling.

As to whether it is helpful if the middle school pupils have had counselling before, it was shown that they highly responded "I don't know" regardless of sexes and school years. And it was found that this that this was attributable to the negative standpoint on counselling and the lack of reliability. As to the reason why the middle school pupils have not had counselling, it was shown that the schoolboys responded that they has not received counselling to attempt to settle the problem give to them for themselves while the schoolgirl responded that they had not received counselling for they would feel ashamed of receiving counselling or have the courage of doing it. It was found that the middle school pupils would have a consultation with friends, brothers and parents first in regular sequence when they would have their agonies or important matters. and it was found that the three percent of the total middle school pupil sampled as subjects had had a consultation with the counselling teacher. With respect to an interest in the operation of the school counselling room, it was shown that the schoolboys had paid less attention to the operation of the school counselling room than the school girl. And it was found that the middle

school pupils responded that the school counselling room should be modified and operated in relation to the present operations of the school counselling room. In particular, it was shown that the 3rd-grade pupils responded that the existing counselling room should be modified and operated in a high proportion.

2) Role of the operation of the counselling room.

When counselling is given to the middle school pupils in the future, they were asked a question of what problems do you want to have counselling about. For this matter, it was shown that the schoolboys would want the counselling concerning decision over life path, settlement of a private problem, and guidance on a knowledge of sex in regular sequence where as the schoolgirls would select the counselling regarding settlement of the private problem, opposite sex, guidance on a knowledge of sex, and how to keep good terms with the friends in regular sequence. With reference to the appropriate time for counselling, it was shown that they responded that they would want to have a consultation whenever they had a problem.

In point of the location of the counselling room, it was shown that the middle school pupil would want the counselling room which was the place of quiet, cozy and good atmosphere as the comfortable resting place and it would be a place without teacher's coming in and out. The middle school pupils wanted the counselling teacher to keep the guaranty of the secret of counselling absolutely and that the principal task of the counselling teacher

would be to do his/her task as pupils helper for the student to settle his own problem through consultation with the counselling teacher. Most of the middle school pupils wanted the counselling teacher who would treat anyone equally, and express him/herself straight forwardly and overtly. It was shown that the middle school pupils would perceive the counselling teacher as the helper capable of understanding themselves. The 3rd-grade middle school pupils responded that the counselling teacher would be similar to the ordinary teacher at a high rate, which points out the negative viewpoint of the counselling teachers having a consultation with the counselling teacher were regarded as the pupils of many agonies, and it was shown that there was a negative viewpoint toward the pupil request for counselling to an extent that the pupils would feel sympathetic with the schoolboys especially.